

조사보고서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 조사

2015. 5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2
1. 청년창업 현황과 창업에 대한 인식	2
2. 창업의 애로사항	4
3. 청년창업의 기대효과	4
4.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과제	5
III. 시사점	7

I.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20~39세 성인남녀 300명
- 조사시기 : 2015년 4월 6일(월) ~ 4월 17일(금)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및 팩스 조사
- 조사대상 특성(응답기업 기준)

기업구분	빈도수	백분비
전체	300	100.0%
20대	137	45.7%
30대	163	54.3%

- 표본오차 : $\pm 5.66\% p$ (95%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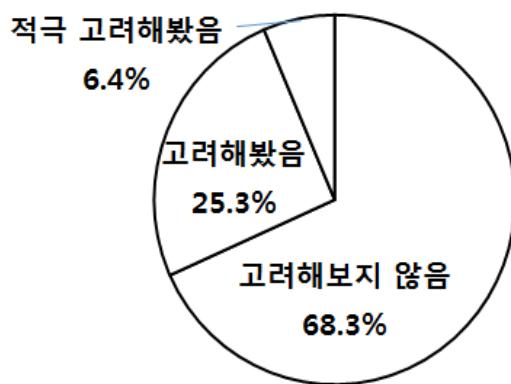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청년창업 현황과 창업에 대한 인식

- 청년 3명 중 1명 정도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창업을 고려해 봤는지'에 대해 '고려해봤음'(25.3%), '적극 고려해봤음'(6.4%)이라는 응답이 31.7%였고, '고려해보지 않았음'이라는 응답은 68.3%로 집계

<그림1> 청년의 창업 고려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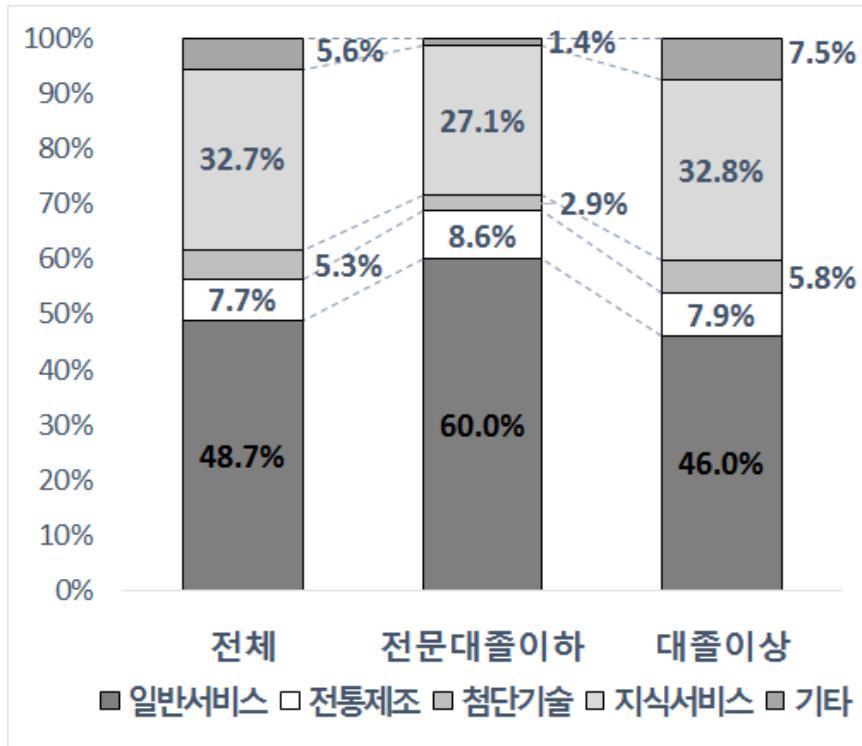
-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업주가 30세 미만인 신설법인 수 증가율이 3분기 연속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창업주가 30세 미만인 신설법인 수 증감률 (출처 : 중소기업청)
• 연간 : ('13) 3.8% → ('14) 6.6%
• 분기 : ('14. 1/4) -5.6% → (2/4) 1.1% → (3/4) 13.5% → (4/4) 19.0% → ('15. 1/4) 21.9%

- 응답자들은 창업 희망분야에 대해 '외식업, 소매업 등 일반서비스업'(48.7%), '통신, 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32.7%), '식품, 섬유 등 전통제조업'(7.7%), '의약, 전자 등 첨단기술기반사업'(5.3%) 순으로 응답 <'기타' 5.6%>

- 학력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기술형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식서비스 사업' : 대졸이상(32.8%) vs 전문대졸 이하(27.1%), '첨단기술기반 사업' : 대졸이상(5.8%) vs 전문대졸 (2.9%)>

<그림2> 창업 희망분야



- OECD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창업 유형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나타나 조사대상 29개국 중 가장 높았고, 기회추구형 창업은 21%로 최하위에 머물렀음

<표1> OECD 회원국 창업유형 현황(%)

구분	기회	가업	생계	기타	계
OECD 평균	52	15	26	7	100
미국	54	14	26	6	100
독일	46	19	28	7	100
일본	46	22	22	10	100
한국	21	14	63	2	100

* 출처 :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 OECD

2. 창업의 애로사항

-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응답자들은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실패의 두려움'(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업공간 등 인프라 부족'(24.3%), '사업운영 과정의 어려움'(21.3%), '창업관련 체계적인 교육 부재'(17.7%)를 차례로 지적했음<기타 1.0%>

<표2> 창업의 걸림돌(%)

	실패 두려움	인프라 부족	사업운영 애로	교육시스템	기타	계
전체	35.7	24.3	21.3	17.7	1.0	100.0

- 청년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

- 창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0.3%), '대체로 긍정적'(40.7%), '대체로 부정적'(50.3%), '매우 부정적'(8.7%)으로 집계

<표3> 창업에 대한 사회분위기(%)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전체	0.3	40.7	50.3	8.7	100.0

-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13)'에서도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의견이 과반수였음 <찬성 47.9%>

- '창업실패는 개인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92.2%이었음 <그렇지 않다 7.8%>

3. 청년창업의 기대효과

- 청년창업이 활성화 되면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되고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됐음
 - 성공한 청년기업가가 많아진다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업의 위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7.0%로 집계

* 대한상의 '기업호감도' 조사 : '13학 51.1점 → '14상 47.1점 → '14학 44.7점

<표4> 청년창업의 기업호감도 개선 여부 전망(%)

	매우 좋아질 것	대체로 좋아질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	계
전체	7.7	59.3	30.7	2.3	100.0

- '청년창업 활성화가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4%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

* 청년실업률 추이(15~29세, 통계청) : 7.5%('12년) → 8.0%('13년) → 9.0%('14년)

* '15. 2월 청년실업률(15~29세, 통계청) : 11.1%('99. 7월 11.5% 이후 최고)

<표5> 청년창업의 청년실업 해소 기여 전망(%)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 안될 것	전혀 도움 안될 것	계
전체	6.7	52.7	37.7	2.9	100.0

- 청년창업이 우리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으로는 '새로운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으로 산업생태계의 순환이 원활해 질 것'(4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투자가 늘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25.0%), '생계형 창업 과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18.7%), '청년기업에 대한 M&A 활성화 등으로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 될 것'(13.3%) 순으로 집계 <'기타' 0.3%>

<표6> 청년창업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산업생태계의 원활한 순환	42.7
투자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25.0
생계형 창업 과잉 문제 해소에 기여	18.7
청년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로 기존 기업 경쟁력 제고	13.3
기타	0.3
계	100.0

4.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과제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창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지원'(42.0%)이 가장 많았고, '체계적 교육시스템 확충'(26.7%), '엑셀러레이터* 등 선도

기업의 창업지원'(18.7%),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 중심 자금생태계 조성'(12.6%) 순으로 집계

- * 엑셀러레이터 : 선도벤처·대기업 등이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지분투자한 뒤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법률·행정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시스템
- ** 크라우드 펀딩 : 창업기업이 온라인에서 소액 증권을 공모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 유치

<표7> 창업활성화과제(%)

	실패부담 완화	체계적 교육시스템	선도기업의 창업지원	투자 중심 자금생태계	계
전체	42.0	26.7	18.7	12.6	100.0

- 현재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자금 등 각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

- 우리나라 창업환경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13년 34위에서 '14년 17위로 큰 폭으로 상승

<표8> '15년 청년창업 지원제도 주요내용

구 분	제 도	주요 내용	규모 (억원)
창업교육	창업아카데미	대학생·예비창업자에 성공CEO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80
사업화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인프라 구축 대학에 교육,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652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 선발해 창업계획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260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입주, 보육센터 운영비 등 지원	227
자 금	청년전용창업자금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융자지원	1,000
재도전 환경	연대보증면제 확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가산금리 없이 연대보증 면제	-

* 출처 : 중소기업청

- 청년 10명 중 8명은 창업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창업에 대한 사회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봄

-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춘다면 창업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응답자의 80.0%가 '그렇다'라고 응답 <'그렇지 않다' 20.0%>

III. 시사점

- 창업열기가 청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
- 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는 기술형 창업보다 시장포화 상태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서비스 창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성장가능성이 크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형 창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또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유롭게 창업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함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도 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첫 번째로 꼽아 창업실패에 대한 공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
 - 또한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창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혁신적인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
- 청년창업은 청년실업, 기업호감도 하락과 같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
- 청년들의 혁신적 창업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부분 역할이 중요
 - 글로벌기업 구글이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서울에 구글캠퍼스를 개소(2015. 5. 8)하는 등 선도기업이 창업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창업지원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
-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모험과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